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윗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

10/28 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1:10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히 2:9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전 15:52-54

52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53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에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 7:16

16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계 1:18

18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계 20:14

14 죽음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 못입니다.

---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셨다는 것(딤후 1:10)은 ... 마귀를 멸망시키는 죽음(히 2:14)과 죽음을 삼키는 부활(고전 15:52-54)로 말미암아 죽음을 아무런 효력이 없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분의 부활을 통해 죽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다. 죽음은 그 능력을 잃었고, 그 맛까지도 잃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멸망시키셨기 때문이다. 물론 주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을 무효화하셨으므로 음부와 무덤 또한 패배시키셨다. ...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골치 아픈 무리를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드셨다. 그분의 부활은 그분께서 사탄과 죽음과 음부와 무덤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었다(히 2:14, 행 2:31).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64, 26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서 2 장 9 절은 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말한다. ...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위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실 수 있었다. 골로새서 1 장 20 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만물을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한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성취된 구속으로 분명히 예표된다.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여덟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구원받았다(창 7:13-23). 그 방주는 이런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이다. 히브리서 2 장 9 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도 죽음을 맛보셨다는 심오한 계시가 있다. 옛 창조물의 머리인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죽음 아래 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일 안에서 이러한 죽음 곧 모든 것을 위한 죽음을 맛보셨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믿는 이들의 몸이 구속된다는 것은 ...그들의 온 존재 안에 있는 죽음이 부활 생명에 의해 삼켜져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멸해질 뿐 아니라 부활 생명에 의해 삼켜질 때가 오고 있다.

고린도전서 15 장 54 절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 그때에 ‘죽음이 삼켜졌으니 승리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때’는 우리의 썩고 죽을 몸이 썩을 것과 죽을 것에서 부활하거나 변형되어 영광과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때이다. ...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함께 참여하는 부활의 완결이다. 이 부활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우리의 썩을 몸이 변형되는 것으로 완결된다. 이 두 끝 사이에 우리의 타락한 혼이 부활의 실재이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

죽음은 사람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부활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삼켜진 결과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수혜자들인 우리는 승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 장 54 절에서 ‘승리’는 ‘부활’과 동의어이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승리이다.

우리의 온 존재 안에 있는 죽음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삼켜질 때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생명은 우리의 영 안으로 주입된 신성한 요소이자 심지어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 썩지 않을 것은 생명이 우리 몸을 적신 결과이다(롬 8:11). ... 장차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몸이 변형될 때, 우리 몸은 썩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 판, 5 권, 그리스도, 메시지 72, 135-136 쪽, 11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1, 129-13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5 권, 그리스도, 메시지 72; 11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81;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8

**10/29 화요일**

아침의 누림

**히 2:14**

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롬 8:3**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고전 15:3-4, 12-14**

3 내가 우선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나도 전해 받았던 것인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4 무덤에 장사되었다는 것과, 성경대로 제삼 일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13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공허한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공허한 것이며,

---

히브리서 2 장 14 절에서 ‘멸망시키시고’는 무효화하시고, 무력하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깨뜨리시고, 쓸모없게 하시고, 버리시고를 의미한다. 마귀 곧 뱀이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창 3:15).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어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갈 4:4) 육체가 되셨다(요 1:14, 롬 8:3). 이것은 십자가에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시기 위한 것이었다. ... 이것은 사탄을 깨뜨리고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할렐 루야, 사탄은 깨뜨려졌고 쫓겨났다! (히 2:14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육체와 관련된 세 가지 크고 추한 것이 있는데 ... 바로 죄와 사탄, 그리고 코스모스(cosmos) 즉 사탄적인 체계인 세상이다. ... 죄와 세상은 사탄에게서 왔고, 오늘날 사탄은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 ...

그리스도는 죄의 육체의 모양을 지닌 사람이 되었다(롬 8:3). 이 사실은 그분께서 실재에서가 아닌 모양에서만 간접적으로 죄와 사탄과 세상에 관련되었음을 나타낸다.

바울은 ... 고린도후서 5 장 21 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었다고 말하였고,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다. 그분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다. 그러 나 하나님은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이러한 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림을 민수기 21 장 4 절부터 9 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장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뱀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놓으라고 말씀하셨다. 이 놋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아났다. ... 뱀의 모습을 지녔지만 독은 없는 그러한 뱀이 그들의 구원자, 구출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3 장 14 절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께서 광야에 있었던 그 놋 뱀의 실재이심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계셨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 모양은 뱀의 독이 없는 놋 뱀의 모습과 동일했던 것이다. 이어서 15 절은 그 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신 것 안에는 모든 죄가 포함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마지막 세 시간 동안 죄가 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께

심판받으셨고 심지어 버림받으셨다(마 27:45-46 와 45 절 각주 1). 하나님은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셔서, 뱀의 독은 없이 뱀의 모습과 모양을 지니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셨다. 그분께 독이 있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 뱀의 모양을 지니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분은 독이 없는 뱀의 모양만 지닌 뱀이 되셔야 했다(비교 롬 8:3 하).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수 있었다.

나는 앞의 간단한 설명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란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시어 간접적으로 죄와 관련되셨지만, 죄의 육체의 모양을 지니신 것에 서만 죄와 관련되셨을 뿐 실재에 있어서는 죄와 관련되지 않으셨다. ... 이런 의미 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간접적으로 죄와 사탄과 세상에 관련 되셨다. 그분께서 죄와 관련되신 것은 고린도후서 5 장 21 절에서도 볼 수 있다. ... 히브리서 2 장 14 절은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에 참여하심으로 사탄을 멸망시키셨음을 보여 준다. 그리스도는 육체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사탄을 못 박으셨고 멸 망시키셨다. ... 그다음으로 요한복음 12 장 31 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으실 때 세상도 심판받았음을 말해 준다. 그 한 번의 죽음, 그 한 번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육체(타락한 사람)와 죄와 사탄과 세상, 이 네 가지가 일소 되었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8 장, 16-1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1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상), 1 장;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18 장

## 10/30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딤후 1:10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 행 2:24

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 고후 5:4

4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요 3:15) 우리를 거듭 나게 하시기 위해(벧전 1:3)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무효화하심으로, 그분의 부활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영원하고도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다는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디모데후서 1 장 10 절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데, 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고(딤후 1:16)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은혜의 주된 요소이다(롬 5:17, 21). 이 생명은 죽음을 정복했으며(행 2:24), 또 죽음을 삼킬 것이다(고후 5:4).

생명은 우리 영 안으로 분배된 신성한 요소이자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다. 썩지 않을 것은 생명이 우리의 몸을 적신 결과이다(롬 8:11). 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죽음과 부패에 대항할 수 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64, 261-262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다(딤후 1:10).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알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복음을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죽음과 썩을 것만 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밝혀 주어 그들도 우리처럼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수록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이 더 밝혀질 것이다. 한 면으로 그리스도는 은혜와 함께 나타나셨다. 즉 은혜와 함께 오셨다. 다른 면으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시어, 믿는 이를 사도가 되게 하는 생명의 약속을 이루셨다.

디모데후서 1 장 9 절과 10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다고 말한다.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살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공급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다. 하지만 이 은혜는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고 적용되었으며, 첫 번째 오심으로 주님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히 9:26). 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 되어 있는 은혜는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왔다. 이 은혜는 단지 어떤 축복이 아니라 한 인격, 즉 우리의 누림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삼일 하나님이라는 인격이다. 이 은혜는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왔고,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64, 259-260 쪽)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딤후 1:15)라고 말하지만, 디모데에게 쓴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는 어조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에서 죽음을 무효화하고 생명을 밝히는 것으로 바뀐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전파자와 교회들을 세우는 사도와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로 세워진 것(딤후 1:11)이 죽음을 무효화하고 생명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생명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지식과 종교의 길로 빛나갔기 때 문이다. … 이 마지막 편지에서 바울은 주님의 회복의 기본 항목인 생명을 강조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 년, 2 권, 주님의 회복의 기본 항목은 생명이고 주님의 회복의 결과는 몸임, 1 장, 612-6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64; 위트니스리 전집, 1975-1976 년, 2 권, 주님의 회복의 기본 항목은 생명이고 주님의 회복의 결과는 몸임, 1 장

### 10/31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딤후 2:8

8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시자 다윗의 씨이십니다. 나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 롬 8:11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 행 10:41

41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 살전 4:14

14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잠든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 요 1:1

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 요 11:25

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 요 20:17

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십시오.”

---

사도행전 13 장 30 절로 시작해서 바울은 ...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것(2:24, 32)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10:40-41)도 말해 준다. 사람이신 주님께 관하여,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한다(롬 8:11).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께 관하여, 신약은 그분께서 스스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롬 14:9).

사도행전 2 장 24 절은 주님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었다고 말한다. 주님은 하나님과 부활(요 1:1, 11:25) 모두이시며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다(히 7:16). 주님은 이처럼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분은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가두어 둘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7, 314 쪽,  
메시지 10, 84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15 장은 부활에 관한 장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세상과 죄와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였다.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승리하시고 높은 곳으로 승천하신 후에(엡 4:8),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셨다(고전 15:25). ... 부활 안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땅으로 오셔서(단 7:13-14),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 장 55 절에서 바울은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 이것은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에 대한 사도의 승리에 찬 외침이다.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8, 660 쪽)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지는 일을 성취하셨다. 사도행전 10 장 41 절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며, 로마서 14 장 9 절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20 장 17 절에서 ... 주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을 언급하신다. 부활하신 날 주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 이것은 비밀한 승천이며, 제자들이 보는 데서 일어났던 그분의 공개적인 승천(행 1:9-11)이 있기 사십 일 전에 이루어졌다.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그분은 아버지를 만족시켜 드리기를 위해 승천하셨다. 예표에서 수확물의 첫 열매가 맨 먼저 하나님께 드리졌던 것처럼, 그분의 신선한 부활은 반드시 가장 먼저 아버지께서 누리시기 위한 것이 되어야 했다.

우리는 레위기 23 장 10 절과 11 절 및 출애굽기 23 장 19 절 상반절에서 그 예표를 본다. 레위기 23 장 10 절과 11 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너희 수확물 중 첫 열매의 곡식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 곡식 단을 여호와 앞에 서 흔들여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여 바쳐야 한다.” 이 첫 열매의 곡식 단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고전 15:20, 23). 그리스도는 정확히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며,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의 첫날이다. 수확물 중 첫 열매는 안식일 다음 날, 즉 그 다음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졌다. 주의 첫날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은 하나의 예표일 뿐 아니라 요한복음 20 장에서 성취된 예언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5 권, 그리스도, 메시지 73, 151-153 쪽)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두 번째 출생 곧 그분의 부활을 통해 태어나신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며, 또한 다윗의 거룩한 것들이시자 신실한 것들이시다(행 13:33-34). ... 부활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실하며 신뢰할 만한 것들이시다. 사도행전 13 장 33 절과 34 절에서 바울은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구주이시자 하나님의 맏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심을 지적한다.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8, 318-3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7-38

11/1 금요일

### 아침의 누림

#### 고후 5:17

17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 갈 6:15

15 이것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며 중요한 것은 새 창조물뿐이기 때문입니다.

####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 갈 5:24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 골 3:10-11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 고전 12:12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안에서 행하신 일의 또 다른 방면은 주(週)의 첫날에 일어나셔서 새 창조물을 받아주시신 것이다(고후 5:17). ... 주 예수님께서 주의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 않으시고 첫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요 20:1). 첫날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킨다. 성경에서 주의 첫날은 여덟째 날이라고도 한다(요 20:26). ... 주 예수님은 한 주의 어느 시점에 죽으셨고, 또 다른 주가 시작될 때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을 여는 새로운 출발이었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5 권, 그리스도, 메시지 73, 155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육 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러한 칠 일은 옛 창조물의 세대였다. 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 다른 세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옛 창조물은 지나갔으며 새 창조물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 그러므로 주의 첫날은 새 창조물,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첫날에 일어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온 우주가 새로운 시작을 갖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분의 부활은 신시대, 곧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옛 창조물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그런 다음 주의 첫날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주님의 죽음은 옛 창조물의 종결인 반면, 그분의 부활은 새 창조물의 발아였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의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대신에 주의 첫날인 주님의 날에 모인다. 이것은 부활 안에서 우리가 여덟째 날, 혹은 주의 첫날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주의 첫째 날을 주님의 날(계 1:10)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에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신 주님이 되시고, 부활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오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 창조물을 받아주시셨을 때, 그분은 세마포와 수건 (요 20:5-7)이 상징하는 옛 창조물을 무덤 안에 남겨 두셨다. 예수님의 몸은 장사되기 전에 세마포로 묶였다(19:40). 이것은 그분께서 옛 창조물에 속한 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는 옛 창조물이 그분의 장사되심을 통하여 무덤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주님의 부활한 몸에서 벗겨져 무덤 안에 남겨진 모든 것은 옛 창조물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옛 창조물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옛 창조물과 함께 장사되셨다. 그러나 그분은 옛 창조물 가운데서 일어나시어, 옛 창조물을 무덤에 남겨 두시고 부활 안에서 새 창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옛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거듭난 믿는 이들로 구성된 새 창조물에는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있다(요 1:13, 3:15, 뱀후 1:4).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옛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새로운 본성에 따라서 새 창조물이다(고후 5:17, 갈 6:15).

옛 창조물이 신성한 생명으로 발아될 때, 그것은 새 창조물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발아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이제 새 창조물이다. 옛 창조물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지만, 새 창조물은 발아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다. 이러한 발아는 믿는 이들 안으로 신성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분배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므로 발아는 믿는 이들이 거듭나 새 창조물이 되도록 그들 안으로

신성한 생명이 분배되는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5 권, 그리스도, 메시지 73, 155-15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 44-45, 52, 54-55

## 11/2 토요일

### 아침의 누림

#### 삼하 7:12-14

12 네 날이 차서 네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뒤를 이을 네 씨를 일으킬 것인데, 그 씨는 네 몸에서 날 것이며, 나는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13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것이다.

14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벌할 것이다.

#### 롬 1:3-4

3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4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 마 22:41-45

41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다.

42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니,

4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44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

사무엘기하 7 장 12 절부터 14 절 상반절까지에서 ... ‘네 씨’와 ‘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은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 즉 사람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사상은 신약, 특히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에서 매우 분명하게 이어진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육체에 따라 말 하자면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에 따라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한다. ... 이 절들은 한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이시며, 또 다른 면에서는 다윗의 씨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음을 계시한다. 이 두 부분의 말씀을 비교할 때, 우리는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문제를 본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 디, 메시지 25, 192-19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분 자신께 필요한 것도 아님을 지적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분 자신께서 다윗의 씨이신 분을 건축하실 것이고, 이 씨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씨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일 것이다. 히브리서 1 장 5 절은 이 씨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보여 준다. 더 나아가, 우리가 보았듯이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은 사무엘기하 7 장 12 절부터 14 절 상반절까지와 일치하며, 부활 안에서 다윗의 씨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음을 말한다. 내재적인 의미에서 사무엘기하 7 장 12 절부터 14 절 상반절까지와 로마서 1 장 3 절과 4 절은 우리에게 인간적이고도 신성한 분을 계시한다.

사무엘기하 7 장 12 절은 다윗의 씨를 언급한다. 결국 이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14 절). 이것에 관하여,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다(마 22:41-45). 먼저, 그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42 절)라고 질문하셨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시라고 말했을 때, 주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다윗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셨다(43 절). 마지막으로 그분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45 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우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질문이다. 어떻게 그리스도는 사람의 씨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시자 다윗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가? ...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불렀는지를 질문하셨을 때,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한편으로 그분은 사람이셨고,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누구도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킬 수 없다.

사무엘기하 7 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의 씨를 약속하셨다. 결국 이 다윗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롬 1:3-4). 오늘 다윗의 씨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분은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이시다. 그분은 중심과 둘레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의 집약이자 완결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모든 것에 미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창조물이시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계 1:17), 시작과 끝이시다. 그분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며(엡 1:23), 완결되시어 그 영이 되었다. 그분은 우리의 음식과 음료와 호흡과 옷이시다. 그분은 또한 몸의 모든 지체이시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신다. 몸은 머리가 아니고 머리 역시 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머리이시자 또한 몸이시다(고전 12:12, 골 1:18). 생명과 본성과 조성에서 몸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결국 이 그리스도는 새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시다(골 3:10-11). 새사람 안에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종족이나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여지가 없다. 새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을 뿐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 디, 메시지 25, 195 쪽, 메시지 27, 205-206, 21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 디, 메시지 25, 27, 31;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 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9

###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 디, 메시지 68

찬송: 639 (英) 사망 이긴 부활의  
생명은 (中:472)

1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창조되잖은 영원한 생명  
파괴되잖은 승리의 생명  
그리스도가 나타내셨네.

2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죽음 통해 더 확증되었네  
죽음은 다만 기회를 주어  
이 생명 풍성 나타나게 해.

3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죽음과 매장 통해 번식해  
고난 통하여 자라는 생명  
풍성한 열매 더욱 얻었네.

4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모든 방해와 장애 돌파해  
어둠과 음부 권세 이기고  
죽음 삼키고 생명 해방해.

5 죽음 이긴 부활의 생명은  
신성의 모든 충만 나타내  
하나님 의와 성결 산출해  
하나님 영광 형상 나타내.

6 죽음에도 그 능력 발하는  
부활한 생명 얻기 원하네  
이 생명은 곧 사신 주 예수  
체험 통하여 깨닫게 되네.

11/3 주일

### 아침의 누림

고전 15:20-28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21 죽음이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습니다.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23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24 그다음은 끝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없애 버리시고,  
왕국을 그분의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2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왕으로서 다스리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26 마지막으로 없어져야 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2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복종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신 하나님은 그중에  
들지 않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28 모든 것이 그분께 복종하게 된 그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께 복종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2:25-29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63-64

###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Discipline of the Lord

Scripture: Heb. 12:3-13

Assigned Reading: *LS of Hebrews*, msg(s). 51, 61-62

Supplemental Reading: *CWWN*, vol. 50, "Messages  
for Building Up New Believers (3)," ch. 41

### Questions:

1. Is discipline a kind of punishment or is it different from punishment?
2.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phrase "the Father of spirits" in Heb. 12:9 in its context?
3. Why does God discipline His sons?
4. What does it mean for discipline to yield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to those who have been exercised by it?